



“지금 이 자리에서 배우고 행하면 행복해져요.”

이 란 (가정법회 지도법사)



#18년간 가정법회 이끌어

여여원(如如院) 입구에 들어서면 “그대 스스로 그대를 점검하라” “그대 스스로 그대를 일으키시라”라고 쓰여진 주련과 마주하게 된다. 몇 개의 계단을 오르다 보면 “묵언”이라는 글자와 마주치게 된다. 이리하여 여여원에 들어서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매만지고 마음을 가다듬게 된다. 3층 법당에는 상징적으로 관세음보살상 한 분을 모셨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가정법회’라는 단어조차도 생소한 형편인데, 이란씨는 18년 동안 가정법회를 이끌어 왔다. 가녀린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18년이나 지속시킬 수 있었는지 궁금하여 물었다. “좋아서 하는 일이면 힘든 것도 모르고 즐겁게 하며 그러다 보면 저절로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답하였다.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주부입니다. 그들에게 저는 ‘우리가 여성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여자의 힘은 자신을 살리는 힘도 되지만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힘의 원천인데 왜 함부로 살아요?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지키고 자식을 지키는 것은 오직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동안 집에서 18년간 가정 법회를 이끌어왔는데, 올해 초 지인으로 부터 더욱 열심히 정진하라는 격려와 함께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았다. 그 선물이 바로 광진구에 위치한 ‘여여원’이라는 법당이다. 이란씨는 “이젠 밖으로 드러내도 된다는 부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고 했다. 이란씨는 또한 ‘사단법인 대한불교 법사회’ 법사이기도 하다.

“이곳 역시 가정법회의 연장입니다. 이곳은 동네 사람들의 공동체나 사랑방처럼 활짝 열려 있어요. 예수 보살, 천주 보살도 와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 하다 갑니다. 그리고 이곳은 마음이 아픈 사람, 삶이 고단한 사람도 와서 쉬었다 가는 곳이에요. 마음이 아픈 이가 와서 이야기 하면 잘 들어주고 아프겠다 하면서 차 한 잔 주고, 화가 난 사람이 오면 ‘화 나겠다’ 하면서 차 한 잔 마시고 그래요. 전 별 것 안 해주어도 예수 보살, 천주 보살들이 우리 집에 오고 싶어 해요.”

“여여원”이라는 간판을 보고 “여기서 사주 봐주나요?”하고 묻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면 “여기서는 스스로가 공부를 하면 자신이 자신을 알게 해주는 철학을 가르쳐주는 집이지요”라고 답한다. 이란씨의 뚜렷한 불교관을 엿볼 수 있다.

#집에서 공부하고 집에서 실천

이란씨는 집에서 들은 스님의 법문이 너무 좋아 경전을 공부했고 그것을 혼자 알고 있기에 애가웠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과 친구를 도반으로 해서 이란씨의 거실이 법당이 되어 우선 <부처님 일대기>를 공부했다. 그 후 법사스님을 모시고서 서른 명의 사람들이



모여 <육사경> <법화경> <무량수경> <법화삼부경> 등을 공부했다. 이러한 경전공부를 통해서 올곧은 신심을 지니게 되었다고 한다. 그때 거실에서 공부를 시작한 도반들이 이젠 육식을 전후한 나이에 들었기에 지금은 <승만경>을 공부하고 있으며, ‘승만 보살’의 삶으로 회향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있다. 그 말이 끝에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덧붙였다.

“사람들은 어떻게 천원을 놓고 그렇게 많은 복을 바라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내 전 재산을 놓고 기도를 해도 내 업장이 가벼워질까 말까한데... 천원을 놓고 원을 성취하려는 그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 스스로가 원하는 바를 만들어가야지요. 세상을 급히 가려하지 말고 쉽게 얻으려 해서는 안 돼요.”

이란씨는 신해행증(信解行證)이 하나로 꿰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다. 믿는 것과 동시에 행하여야 하고, 행하는 것이 열매로 증득되어져야 하며, 불교를 믿는다면 믿는 그대로 생활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부처님 좋아하는 그 마음을 남편 부처, 아들 부처, 이웃 부처님께 회향하다 보니 저보고 주변에서 보살의 삶을 산다고 하네요. 저는 ‘법당에 가서 절하려고 하지 말고 내 집 안방에서 가르침을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부처입니다”

14년에 걸쳐 <법화경>공부를 하고 나니 ‘상불경 보살’이 만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당신은 부처입니다’라고 말해주었듯이 이란씨 역시나 만나는 사람들이 다 부처로 보이더라.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은 부처요’라고 반복해서 말해주니 감추어진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약간의 제주만 있어도 도반들끼리 잘한다고 격려하고 그 재주를 어떻게 부러먹을 지를 궁리했어요.”

그래서 누구는 붓글씨를 잘 쓰니 경전을 써서 책으로 엮는다, 누구는 바느질을 잘 하니 도반들에게 예쁜 가방을 만들어준다. 어떤 도반은 한과를 잘 해서 행사 때 만들어온다 등 그렇게 서로의 능력을 인정해주었다. 이란씨 역시 외부로부터 이러한 능력을 인정받아 성신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생활예절’을 가르치고 있다. 그것도 기독교재단의 학교로부터 초빙 받았으니 더욱 귀한 일이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불교가 되어야 하며, 예술이 되어야 하며 아름다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다 보니 그 소문이 성신여대까지 퍼졌다 봐요.”

자질한 일상의 행복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파문을 일으킬 수 있구나 놀라기만 하다. 일상의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이란씨는 결코 일상의 행복에만 안주하지는 않는다. 부단히 노력하고 배운다. 불교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 동국대에 입학하여 만화도가 되어 2년 정도 배웠지만 자신의 갈증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지금은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 서문 전문 강단에 다니고 있다. 이란씨가 지금까지 가정 법회를 이끌어 온 것도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임에 틀림없다.

이란씨는 갈 길을 헤매는 이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고, 화를 잘 내는 이에게는 웃는 얼굴도 보시임을 가르쳐 주고 마음이 산란한 이에게는 선정을 닦을 것’을 권한다. 내가 찾는 모든 것은 내 안에 내 발 밑에 있음을 깨우쳐주고 있다. 여여원을 나서면서 주련의 글귀를 다시 한 번 새겼다.

“그대 스스로 그대를 점검하시라.”

“그대 스스로 그대를 일으키시라.”

글·사진·문운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수제화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코 만행화

문의 및 주문전화: 02) 733-5715, 011-9000-5715

입금계좌: 농협 063-12-250427 (구자인) 합장

본사, 전시장: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NAVER

통합검색 | 만행화 |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를 검색해 보세요

방한용털신

• 가격: 6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검정

조각무명

• 가격: 12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자연색

특무명

• 가격: 90,000원
• 규격: 220-255mm
• 색상: 회색, 검정

3-1끈

• 가격: 8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검정

사계절단화

• 풍산동 99%

• 지압식 깔창

최고의 선물

지압깔창

풍산동 99%

발명특허원41435

• 가격: 15,000원